“따뜻한 무관심이 신행으로 이끈다”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⑥

인터뷰 | 조계종 기획실장 묘장 스님

체험 통해 ‘다음 만남’ 기약
“종책 앞서 스님들 의지 중요”
사찰 특성별 포교 방안 마련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최근 젊은 세대가 불교에 호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강요하지 않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꼽힌다. 산사음악회와 템플스테이, 불교박람회 등도 신도 확보보다 문화와 쉼을 나누는 기회로 인식되면서 부담 없이 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사진〉은 이러한 호감이 실제 신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무관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절을 처음 찾은 이들에게는 ‘차 한잔하실래요?’ ‘사찰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먼저 다가서는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체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향을 피우고 초를 밝히거나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경험도 중요하다. 공감과 대화를 통해 사찰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다음 만남’을 만드는 일이 다. 묘장 스님은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털어놓은 이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초를 밝혀보라거나 인등을 켜보는 등 부담 없는 실천을 권할 수 있다”며 “다시 절을 찾을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신행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병원’을 예로 들며 “병원에는 접수와 안내를 거쳐 의사를 만나게 되지만, 절은 종무소에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찰에서 스님을 볼 수 없다면 병원에 왔는데 의사를 못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에 왜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사찰에서 스님들이 하루 몇 시간이라도 대중과 함께하며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불교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청년 불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 연화사의 사례도 소개했다. 스님이 주지로 있는 연화사는 청년 공양 프로그램 ‘청년밥심’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는 청년회 가입과 수계로 연결됐다. 올해 청년 수계자는 예년 15명 안팎에서 6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계를 받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조계종 신도증을 발급받으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반기 수계법회 추가 개최 요청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묘장 스님은 “청년들을 신도나 노동력이 아닌 함께 성장할 인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편하게 머물며 천천히 불교에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은 종단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 사찰에서 스님들이 스스로 변하고 노력해야 한다. 스님들의 의지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찰마다 현실에 맞는 포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묘장 스님은 “일괄적인 시스템보다는 각 사찰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포교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주지 스님들이 연속성을 갖고 포교 정책을 실현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 제언

‘어떻게 살까’ 묻는 청년 품는 생활공동체로

강의 중심 지식 전달 아닌
佛法 일상 구현 ‘생활 교육’
사찰 · 청년 관계 ‘공동체’로
경험 쌓이는 관계 지속돼야

최근 몇 년 사이 불교를 대하는 청년들의 태도가 분명 달라졌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불교계 내부에서도 여러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물음은 청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기대, 혹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우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물음과 상반된 해석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청년들은 왜 지금 불교를 찾는가, 불교에 대한 청년들의 호감과 관심을 신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신행(信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불교는 대중에게 가장 호감 가는 종교”라고 말한다. 실제 여러 종교 인식 조사에서 불교는 오랫동안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로 조사된다. 호감은 때로 관심으로 이어진다. 관심은 호감 가는 대상에 대한 능동적 탐색을 이끈다. 책을 찾아 읽고, 사찰을 방문하고, 명상(참선)을 배우고,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행위들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불교가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흐름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관심을 어떻게 신행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포교 현장에서 ‘신행’은 불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찰공동체의 일원으로 수행과 기도, 법회, 의례, 봉사 등에 참여해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신행 활동은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법회와 기도, 수행, 의례 등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활동이다. 둘째는 불교대학 등을 통한 교리 교육이다. 셋째는 보시와 자원봉사 같은 보살행 실천이다. 넷째는 사찰의 신도회 활동이다. 신도회는 법회, 기도, 자원봉사 활동 등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신행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불교를 찾는 청년들의 문화와 요구에 맞춰 새로운 내용이 더해져야 한다.

오늘날 청년들은 불안과 번아웃, 고립, 우울 속에서 불교를 찾는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마련은 부모세대에 비해 구조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됐다. 게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금융위기,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들은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 불안은 일상의 정서가, 생존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템플스테이 참가 동기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참가자들은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자기성찰, 삶의 의미 탐색, 자기성장, 자연과의 관계 회복 등을 중요한 이유로 꼽는다. 이를 보면 청년들이 찾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다. 청년들은 불교를 지금과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욕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청년 포교는 여전히 법회와 교육, 각종 신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데 머물러 있다. 이러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기준이다. 그렇다면 신행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신행’은 불교의 가르침을 새로운 삶의 기준이자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안되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한마음선원 청년회의 여름수련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신행은 문자 그대로 믿음과 실천이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신(信)·해(解)·행(行)·증(證)의 네 단계로 설명한다. 신(信)은 부처님과 불법을 믿는 것이고, 해(解)는 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행(行)은 그렇게 이해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증(證)은 그 실천을 통해 삶이 변화하고 진리가 자기 삶에서 확인되는 단계다.

따라서 신·해·행·증은 단순히 수행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세계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양식으로 살아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행은 교육과 수행, 법회와 기도, 보살행 활동 각각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생활공간과 사회적 활동공간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들에게 신행은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제안돼야 한다. 이를 위한 신행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불교 입문 교육을 ‘교리 교육’에서 ‘생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입문 교육은 교리를 지식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실제 교육도 일방향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기와 사성제, 자비를 개념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배우는 교육이다. 연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자비를 직장에서의 갈등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소비와 노동, 쉼의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익혀야 한다. 입문 교육은 불교를 아는 교육을 넘어 불자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생활 교육으로 구성돼야 한다.

둘째, 사찰과 청년의 관계를 ‘프로그램’에서 ‘생활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찰에 머무는 이유는 좋은 프로그램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통해 맺은 좋은 관계 때문이다. 따라서 사찰은 법회와 행사에 청년들을 초대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최근 일부 사찰에서 운영하는 청년밥심, 수행과 휴식을 위한 올데이 프로젝트 등과 같은 시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계이다. 함께 밥을 먹고 고민을 나누며 공부하고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경험이 쌓일 때 사찰은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일주문에 들어선 많은 청년들이 있다. 한국불교가 이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불자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과 함께 불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양식과 공동체여야 한다.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7차분 7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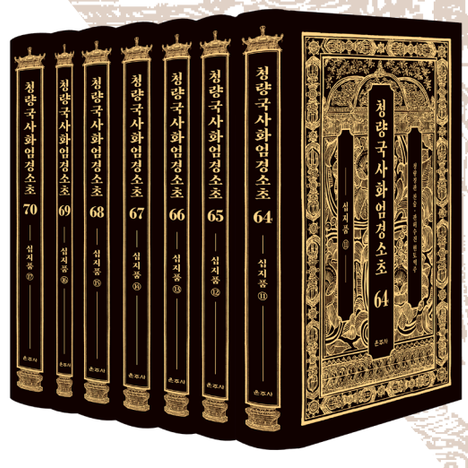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70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십지품」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